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이낙연 의원이 8·29 전당대회에서 60.8%의 압도적 득표로 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되었다. 결국 ‘어대낙’ (어차피 당 대표는 이낙연)이었다. 이번은 없었다. 이 대표는 취임 일성에서 “5대 명령을 이행하는 데 역량을 쏟아 낼겠다”고 다짐했다. 5대 명령은 ‘코로나 전쟁 승리, 국민의 삶 지키기, 코로나 이후 미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 등이다. 가장 시급한 건 ‘코로나19 극복’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에게는 이에 못지않은 중대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첫째, 무엇보다 ‘이낙연 독자 정치’를 펼쳐야 한다. 핵심은 대통령과 당·청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공언한 ‘민주당 정부’는 사라지고 오직 청와대가 모든 것

‘이낙연 정치’로 협치하고 혁신하라

을 지배하는 ‘청와대 정부’만 존재했다. 청와대는 민주당을 수직 통치했고, 민주당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집권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하는 정치 적폐가 지속되었다. ‘엄중 낙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대표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역력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통상 대통령과의 관계는 크게 일체화, 독자화, 차별화로 구별된다.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과 선부른 차별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2002년 새천년민주당 이인제 후보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이낙연 대표가 6개월 남짓한 임기 동안 대통령과 철저히 일체화하면서 친문에 얽혀 가려고 한다면 이재명 지지자와의 경쟁 구도에서 밀릴 수도 있다. 국민의 ‘문재인 시즌 2’를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02년 노무현 후보는 범주류였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일체화되기도 못하는 독자화 노선을 걸으면서 성공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인식의 대전환을 통해 ‘용기 있는 협치’를 실천해야 한다. 이 대표는 “원

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는 “친박 일색으로 망한 게 미래통합당인데, 민주당은 친문 일색으로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칙 있는 협치’란 친문의 눈치를 보면서 야당이 협조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대표가 진정 통합 정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야당과의 ‘다치고 협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자신의 지지층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

셋째, 시대정신에 맞는 비전과 가치를 제시해 호남과 친문을 넘어 확장성을 확보해야 한다. 역대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예외 없이 자신이 추구하려는 가치를 통해 ‘이슈 파워’를 선점했다. 가령, 노무현 후보의 ‘특권과 차별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 박근혜 후보의 ‘원칙과 신뢰’ 등이 대표적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임기를 마치면서 “지도부가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국민께 진솔하게 말씀드려야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는 문재인 정부와 여권 인사들에 대해 “남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남의 비판은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현 집권 여당이 안고 있는 거짓과 위선, 무능과 교만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선 이 대표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로 ‘정직과 소통’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를 기반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책 성과를 통해 혁신의 가속화를 이뤄 내야 한다. 집권당이 중심이 되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가 없으면 혁신 성장으로,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면 공급 확대 정책으로, 회전문 인사가 잘못 되었으면 대량평 인사로, 기조와 방향을 바꾸어 성과를 내야 한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 정책 세부 영역까지 관장한다 해서 ‘이테일’ (이낙연+디테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계 파업을 국회가 문제 해결에 나서고 협의체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실용과 디테일로 성과를 내야 한다. 이것이 혁신이다.

기고

세월호 안은 목포시, 사랑의 도시로 기억된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

되새긴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은, 가장 가슴 아픈 상처이기 때문이다.

그때의 기억은 너무나 커다란 놀람과 아픔이었다. 2014년 4월 16일, 목포시 장 선거에 출마한 필자는 방송을 통해 고향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기울어 가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

조도면 관매도라는 먼바다 섬에서 나고 자라 크고 작은 해양 인명 사고를 목격했던 터라,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1960년대 해남 화원 앞바다에서 발생한 천신호 사건, 또 비슷한 시기에 팽목항 인근에서 발생한 한성호 사건 등 수많은 인명을 잃었다.

그때 부근에서 가슴 아픈 사고를 지켜 봤던 터라, 포다시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았다. 끔찍한 사태에 엄청난 충격이 가슴으로 미어지듯 쏘려 왔다. 실종과 사망자가 한 사람도 없이 전원 구조 되기를 손 모아 절실하게 기도했다.

그러나 모두가 우려했던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 도움을 줄 수 없는 무력감에 내 자신을 자책했다. TV를 통해 사고 영상을 접한 모든 국민이 나와 같았을 것이다. 패닉 감정을 추스르며 제일 먼저 고향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선주배들에게 “뒀라도 좀 해 보라”는 간절한 내용의

전화를 걸었다.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현장 인근을 찾았지만 아슬한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당시 고향 지인들이 참사 발생 인근 해역에서 소형 어선으로 구조 활동에 동참해 최선을 다하던 모습이 생생하다. 우리 모두가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자 노력했지만 희생은 막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그날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7년 3월, 이번에는 세월호 인양 후 임시 거처할 장소가 필요했다.

당시 목포시장이던 필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임시 거처 장소 제공을 요청받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 현 위치인 신항만 부두에 임시 거처가 이뤄졌다.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 등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많은 시민이 인도적 차원에서 아픔을 함께하자는 뜻에 동의했다.

세월호 임시 안치가 결정되고 배가 인양된 후 신항으로 향하자 목포시민들은 모두 하나 되어 힘을 모았다. 시민들은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며 진정으로 아픔을 함께 나눴다. 희생을 달게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봉사에 동참했다. 전 국민은 목포시민들의 결정과 희생, 참여에 감사를 보내왔다.

다시 3년 남짓 세월은 흘러 지난 8월 18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 영구 보

존 거처 장소로 신항만 배후 부지인 고하도를 최종 선정했다. 목포시민들의 74%가 안치에 동의했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 단체가 신항만 배후 부지를 가장 선호했다는 의견을 토대로 결정된 것이다.

목포시민들은 다시 한번 배려와 사랑으로, 희생을 감수하며 전체 보존의 뜻에 함께 동참했다. 시민들은 세월호와 함께 목포가 기억의 도시, 치유의 도시, 사랑의 도시가 되는데 송고한 뜻을 같이했다.

6년이 넘게 흘렀지만 우리는 그날의 아픔과 세월호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의 고하도 영면이 생명의 고귀함과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아픔이 주는 교훈을 영원히 되새기고 반성하며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다.

역설적으로 ‘망각하기 때문에 약속이 생겼다’는 말처럼 우리는 망각할 수 있기에 약속한다. 그날의 아픔과 희생자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희생자들은 가슴 속에 남아 영원히 소중한 교훈을 일깨워 줄 것이다.

온 국민은 세월호가 안치된 한반도의 서남단 목포를 사랑의 도시로 기억할 것이다.

국민들이 알아 버렸기 때문이다. 안식일 법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이유 때문에 생명을 경시했던 유대인들, 이를 꼬집었던 예수의 시선이 지금 국민들의 시선인 것이다. ‘국민들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했던 정치인들의 행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 봅시다’ 했던 조직 지도자들의 비리, ‘양들을 보살피기 위해 이 한 몸 사랑과 희생으로 살겠다’ 했던 성직자들의 비겁하고 추악한 탐욕을 이제 국민들은 알게 된 것이다.

다시금 예수의 말씀을 되새겨 본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마음을 벗어나 또 다른 마음을 지녔거나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본질을 처참하게 짓밟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예수의 마음은 처음과 같이 이제와 영원히 같았다. 그 마음을 살아가려면 예수의 다음 말씀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려 왔다.”

社說

2차 공공기관 이전 보다 유연하게 대응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광역 자치단체들이 벌써부터 유치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시즌2’로 불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사업에 대한 종합 계획을 조만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이전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러 광역 자치단체들이 유치전에 나서고 있는데 그중 광주시의 전략이 눈길을 끈다.

광주시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해 빛가람 공동 혁신도시를 조성한 ‘시즌1’ 때와 달리 ‘시즌2’에선 단독 유치에 나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단 이전 대상 122개 기관을 7개 분야로 나눠 35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광주시의 전략산업과 연관된 AI, 문화, 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 10개 안팎의 알짜 기관을 집중 타깃으로 정해 유치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가 단독 유치전에 나서면서 내세운 명분은 이전 기관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것이다. 이전 기관 직원들이 교육

과 문화시설,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광역시를 선호하는 만큼 이전 부지도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광역 일대 등 도심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알리가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광주시의 단독 유치 움직임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역민들도 있다. ‘시즌1’의 상상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선 이번에도 전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이 또한 맞는 얘기다.

시즌2 추진에 있어 광주·전남의 공동선은 협력을 통한 상생이란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만 광주시의 단독 추진을 무조건 비판만 할 것은 아니다. 공간적으로는 분리하지만 기능적으로 통합하는 등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 남구 에너지밸리 등 광주 행정구역 내에 시즌2 기관을 유치해 인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와 연계한다면 상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어떻게 해야 실리를 챙길 수 있는지를 따져 보다 유연하게 대응했으면 한다.

‘코로나와 사투’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자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광주 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공무원들이 초인적인 헌신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은 광주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3일부터 어제까지 무려 213일째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실제 북구 보건소 직원 129명의 초과 근무시간은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1명당 351시간에 달한다고 한다.

나머지 자치구 감염병 팀 공무원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보호 장비를 한 번 벗으면 재사용할 수 없어 화장실에 가는 것도 주저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경우도 많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꺼리는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이들은 송고한 희생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한다.

하지만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좌절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기본 나쁘다고 방역요원에게 비협조적이거나 술에 취해 막무가

내로 검사를 요구하는가 하면,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50대인 한 남성은 지난 7월 만취한 채 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 채취를 요구하며 난동을 벌여 여성 근무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이 남성은 의심 증상이 없는데도 ‘다들 해 주는 거 나도 해 달라’고 생떼를 쓰면서 10분 넘게 진료를 방해했다. 이는 공중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코로나에 맞서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벌이면서 전 국민이 지켜 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배려하는 역지사지와 상생의 정신이 절실하다. 방역 현장 요원에 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 주거나 절치에 따라 검체 채취에 협조하는 것만도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무엇보다 당국은 방역 현장요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되, 현장 의료 시스템의 부하를 줄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광주에도 공공 의료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공공 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오래 전부터 의료기관이 있었다. 하지만 기록상으로 보면 체계화된 시설이 운영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귀족이나 지배 계층이 아닌 서민들을 치료하는, 즉 공공 의료기관의 개념은 고려시대에 생겨났다.

공공 의료원

고려시대 제도를 그대로 계승한 조선은 동서대비원에서 병고도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을 모아 필요한 약재를 주었는데, 1414년(태종 14년)에 동서활인원(東西活人院)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세종 12년(1466년)에 다시 활인서(活人署)로 개명했다. 이 활인서에서는 역병 환자를 격리 수용해 치료했다. 더불어 고려시대 해민국은 해민서로 이름만 고쳤을 뿐 기능은 유지했다. 그러다가 1885년(고종 22년)에 활인서와 해민서를 없애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장로교 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이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 의료기관인 광혜원(廣惠院)을 열었다. 다시 광혜원은 개설 13일 만에 제중원(濟衆院)으로 바뀌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는 확인하지만, 의료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해소와 공공 의료 부문 확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부터 먼저 합의를 이끌어 냈으면 한다. /채희종 사회부장chae@

종교칼럼

또 다른 마음



황성호
신부·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일화는 마태오 복음 20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높고 낮음으로 평가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사람, 형제와 이웃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

우리는 누군가의 밑에 있기보다는 위에 있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괜히 우쭐해지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의 위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책임은 조직의 평가와 통제가 아닌 상생으로 이끄는 힘이다.

최근 필자는 ‘조직에는 보스가 아니라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위계적인 관계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서로가 수평적으로 동반하는 상생의 관계를 원하는 시대이며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관계성은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근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관계성으로 조직을 운영하기가 어려운가 보다. 이는 첫 시작의 순수한 마음에서 빛나가 다른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다른 마음은 남을 위해 군림하려 하고, 남들보다 더 소유하려 하고, 더 높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뒤쳐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 서로 앞치락뒤치락 앞서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마음은 사람이 자리할 수 없다. 그래서 생명까지도 경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시되어 있고 즐겁지 않으며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닐까.

정치인, 조직의 지도자, 종교의 성직자들은 자신에게 큰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들의 말 한마디와 행동이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음과 동시에 큰 파장을 일으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망각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다시 책임 있는 이들을 향하는 국민들의 시선이 굵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책임자들의 첫 마음이 사라져 버렸고, 또 다른 마음이 자리하고 있음을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